여수가 감춰둔 47가지 이순신이야기

정사·민담·전설 등 스토리텔링 발굴
엑스포 앞두고 관광 자원화 하기로

충무공 이순신(李舜臣·1545~1598)과 무의공 이순신(李純信·1554~1611).

충무공이 전라좌수사로 있던 시기에 동명이인인 무의공은 장군 휘하의 방답(돌산)첨사였다. 왜적 척후병들에게는 이순신 장군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종횡무진 오가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까닭에 좌수영 본영이 자리한 여수앞바다에는 왜군들이 얼씬거리지 않았고 충무공은 악조건속에서도 23전 23승이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여수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이순신·거북선과 관련된 이 같은 숨은 이야기 발굴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가 감춰둔 47가지 이순신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순신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최종 보고회를 했다.

이번 사업은 이순신이나 거북선 등과 관련해 정사나 야사, 민담이나 전설을 통해 여수지역에 전해내려오는 이야기 중 아직 일반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발굴,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관광자원화하고 세계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표된 47가지 이순신 이야기는 ▲이순신(李舜臣)과 이순신(李純信) ▲이순신과 여수 ▲여수의 거북선 ▲여수와 승전고 ▲이순신과 효-송현마을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고 여수시민은 이순신을 승리로 이끌었다 ▲서너걸음마다 이순신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순신과 여수’에서는 이순신의 그림자가 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거북선과 여수’는 거북선의 제작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로 특히 관심을 끌 전망이다. 또 ‘여수와 승전고’는 “나라가 위태로운데 전라도, 경상도가 따로 있느냐”며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전라좌수군의 활약상을, ‘이순신과 효-송현마을’은 충무공의 모친 변씨 부인에 대한 충무공의 지극한 효심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고, 여수시민은 이순신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는 없어졌다)’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으며 ‘서너걸음마다 이순신’에서는 좌수영 대첩비, 충민사, 석천사, 오충사와 정대수 등 여수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흔적들을 짚어보고 있다.

이날 보고회를 준비한 정희선 여수문화원 이사는 “조금 더 보완하고 잘 준비해 스토리텔링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해 이달중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무인헬기 시범방제 시연회 강진군은 최근 도암면 항촌리 옥전마을 들녘에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전격 지원한 ‘무인헬기 시범방제 시연회’를 가졌다. 이달 중순경부터 병충해 예방활동에 나설 무인헬기는 1일 최대 60ha(1회 3ha)까지 방제 및 살포가 가능하다. 〈강진군 제공〉

“정 넘치던 우리마을 어쩌다 이 지경 됐나”

‘청산가리 막걸리’ 순천 황전면 Y마을 민심 흉흉

순천의 한 시골 마을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먹고 주민 2명이 숨지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9일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Y 마을은 탐문수사와 숨진 최(여·56)씨의 집을 압수 수색 하는 경찰들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마을은 황전면에서는 가장 큰 마을로 114세대 270여 명의 마을주민이 살고 있다. 이 마을은 인근 어느 마을 보다 인심이 좋고 단결력이 좋은 마을로 정평이 나 있는 마을이다. 류근주(63)마을 이장은 “조용하던 마을에 갑자기 끔찍한 일이 일어나 안타까울 뿐이다”며 “숨진 최씨는 부부 금실도 좋았으며 적은 음식도 항상 동네 주민과 나눠 먹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마을은 여느 시골 마을과 같이 자녀들을 모두 결혼 시킨뒤 노 부부들만이 사는 평균 연령이 70세를 웃도는 마을로 모두 친 형제들 처럼 지내왔다.

하지만 이번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김관옥(83) 할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최씨 부부가 기특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황망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서복남(86) 할머니도 “우리 마을은 술을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도 없다”며 “인심 좋은 마을에 이런일이 생겨 주민들간 불신이 쌓이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청산가리를 넣은 범인을 하루 빨리 잡아 마을이 예전처럼 평온하고 화목하길 간절히 기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진도 여미 해풍쑥’ 차·비누 만든다

상품 개발 브랜드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해풍을 맞고 자란 진도군 조도면 여미쑥이 브랜드로 개발된다.

진도군은 “조도면에서 자생하는 쑥을 ‘진도 여미 해풍쑥’이라는 브랜드로 개발, 차·비누·미용제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해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조도면 일원 6.8ha에서 400t이 생산돼 매년 6천여만원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 여미쑥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심한 가격변동으로 제값을 받지 못해 그동안 농한기 부업상품으로만 인식돼왔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여미쑥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개발에 나섰다. 봄에는 한방생약발효차, 여름에는 천연염색, 가을에는 미용제품, 겨울에는 여미쑥차 및 식품으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특히 진도군은 쑥과 개발된 제품을 고급화하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형성하기 위해 ‘진도 여미 해풍쑥’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국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공모전 아이덴티티 디자인 부분에 출품, 지난 6월말 특별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여미쑥 산업화를 위해 조도면 여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미쑥 가공 기술 전수’ 교육을 지난 5월 초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광산구 수완택지지구에 호남최대 농수산물센터

광주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에 호남지역 최대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선다.

농협중앙회는 10일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박광태 광주시장,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전갑길 광산구청장, 농협임직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센터 기공식을 갖는다.

광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광주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 호수공원 건너편 대지 3만7천819㎡, 연면적 4만5천769㎡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8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10년 11월 개장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지하 1층에 기계실·전기실 등이 설치되며 지상 1층은 직판장·저온판매장·집배송장, 지상 2층은 문화센터·고객편의시설·사무실·주차장 등이 각각 들어선다.

/이종태기자 jtlee@

완도, 신지항일운동 성역화 추진

완도군은 신지 항일운동을 기리기 위해 해당 지역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완도군은 신지 항일운동 기념탑 일대 1만4천282㎡의 부지를 사들여 항일운동 자료관과 주차장, 산책로, 기타 편의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 지역 항일운동은 광주학생 독립운동 참여, 토지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작쟁의 등 항일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신지면은 독립운동가 장석천 선생 등 19명의 독립운동가가 태어난 곳으로 항일운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완도군은 2004년에도 31억원을 들여 소안 항일운동 성역화 사업을 추진, 기념탑과 학교복원 전시관 등을 건립했으며 청산 모도 항일운동 기념비 건립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완도군은 신지항일운동 성역화 사업을 2010년말까지 마무리해 역사 교육장은 물론 생활체육공원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강진 작천면 이색 ‘써레 시침’ 눈길

강진군 작천면 주민들이 농사에 가장 중요한 모내기를 마치고 한데 모여 그간의 노고를 푸는 ‘써레 시침’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전통행사인 ‘써레 시침’은 ‘모를 내기 위해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농기구인 써레로 일을 마친 후 써레를 씻어둔다’는 뜻으로 올 한해농사가 시작부터 추수 때까지 잘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난 7일 작천면 용정마을 생태관광체험관에서 열린 써레 시침 행사에는 고대석 강진부군수, 김규태 강진군의회 의원, 마순영 농협군 지부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주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황금닭 백숙과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토마토, 달걀, 옥수수 등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작천 친환경농업연구회를 비롯해 강진 옛날고추작목반 육성에 기여한 오상동 작천농업인 상담소장, 김흥 작천면사무소 실무자에게 각각 공로패가 전달됐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함평 천지영천원 ‘먹는샘물’ 당뇨 예방 탁월… 브랜드화

함평군 신광면 천지영천원의 ‘먹는샘물’이 당뇨에 유효한 성분이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만간 임상시험을 통한 함평군의 새로운 브랜드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기능수연구단에 수질 및 효능분석에 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먹는샘물이 당뇨에 유효한 칼슘·마그네슘·규산 등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청정이미지 구축사업과 연계해 물 산업을 상업화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능수연구단의 수질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미네랄 구성에서 물맛과 효능을 가늠할수 있는 O index, K index의 수치가 높게 확인됐다. 또 물성분 중 칼슘과 황, 규소가 일반수에 비해 높은 농도로 존재해 당뇨병에 유효할 것으로 분석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